朝鮮日報
第二夕刊 四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滿洲國皇帝陛下
畝傍山東北陵과 橿原神宮御參拜

【橿原電話同盟】光輝잇는 皇紀二千六百年 八紘一字의大理想이 新東亞의天地에 顯現될때 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는 四日 我肇國의聖地에 御臨하옵시어 神武天皇御鎭하옵시는 畝傍山東北陵과 橿原神宮에御參拜 盟邦日本의 佳年을慶賀하옵시고 日滿一心一體의 勤... 御信念을表明하옵셧다 聖地는 이제또다시盟邦의 皇帝陛下를 마지하와 御參拜...

皇帝陛下께옵서는 이날 午前九時三十分御出發으로 日滿兩國旗가 펄럭이는 沿道를 ... 橿原神宮에 御參拜 ... 十一時四十分 大宮御所에 御歸還 ...

敵侵入對備準備命令
羅馬尼亞軍司令部

【하하레스트三日發同盟】羅馬尼亞軍司令部는 三日深更羅國軍에 對하여 將次發生할敵의 侵入에 準備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 但그 詳細에對하여는 明確치아니하다

이라크 시리야를併合企圖

【이스탄불三日發同盟】對獨抗戰 政府가組織... 近東軍司令官 미테로제將軍의停戰... 英近東軍으로...

米政府加州沿岸
漁撈許可를取消

【華盛頓三日發同盟】三日의華盛頓스타紙報道에 依하면 聯邦政府는 이지음 約二百의漁船에對하여 文書傳達을理由로 漁撈許可를 取消하엿다한다 그리고上記漁船의大部分은 칼리포니아沿岸에서 漁業에 從事하고잇는 日本船으로 이들漁船은 日本人所有임에 不拘하고 不正手段으로써 事實을 歪曲하엿다는理由에依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帝國大使館에서는 右件에 對하여 目下 鋭意調査中이다

英海岸空襲

【倫敦三日發同盟】獨空軍은 또다시 三日朝 英本國沿岸諸所를襲擊 午後다시 그東南部及東北海岸 及蘇格蘭의 各地를空襲하엿다

△全蘇聯共靑再建

지난六月七日 全聯邦共靑中央委員會第十一回總會가열려 共靑活動分子에對한 指導改善과 共靑의活動에 參加시키기爲하여 ...

蘇丁通商交涉實現化

匈國外交代表入莫
兩國通商改善企圖

初給賃銀決定
八月初부터實施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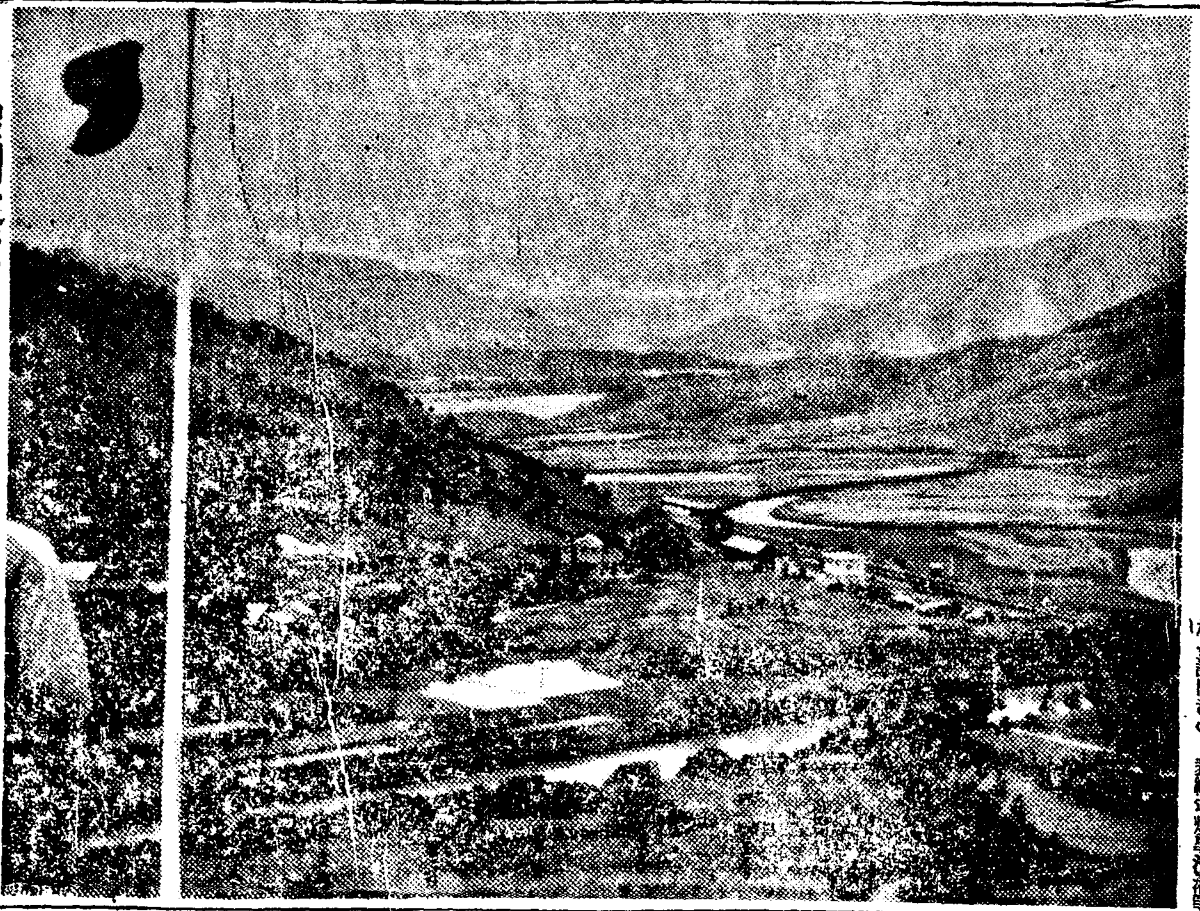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厚生省農案의 賃銀停止令으로비롯 勞務者初給賃銀은 三日內에決定되엇다 ...

駐蘇佛大使
信任狀捧呈

新任駐蘇佛國大使 라봉氏는 去六月二十一日 카리닌最高會議議長에 信任狀을 捧呈하엿는데 ...

若松總領事
印度代表와懇談

【孟買三日發同盟】若松總領事는 三日 日印會商印度代表 ...



深圳附近英支國境을守衛하는皇軍勇士

憲法修正議會召集
佛國再建을促進코저

【주네브三日發同盟】비시에서온情報에 依하면 페탕佛首相은 三日閣議를 열고 佛國憲法에 重要修正을加하기爲하여 近近議會를召集하기로決定하엿다 ...

滿洲勤勞奉仕隊
女子靑年隊結成

【東京電話同盟】靑年學徒의 ...

新戰術
空中서戰車降下
蘇聯軍羅國進駐時使用

【부카레스트三日發同盟】...

米領事館
獨立記念祝賀式

京城米國總領事館에서는 四日午前十時부터 ...

赤軍軍紀振肅
最近歸朝한 ...

辭令

獨占領四個國서
米外交機關撤收?

【華盛頓三日發同盟】...

援蔣에 一旬閣內不一

【東京電話同盟】...

貴族院皇軍慰問團
今日入京

外相陸相과要談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四日午前十時三十分 陸相을 訪問約三十分間 要談하고 十一時辭去하엿다

外相首相을訪問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四日午前十時五十五分 首相官邸로 米內首相을 訪問하고 ...

간디翁 印度總督 會談決裂
英國側自治領案主張

간디翁
總督과의會見報告

匈牙利부市에
反共示威運動

大統領選擧豫想
依然루氏熱優勢

人事·消息

八面鋒

三越の食料品 最盛期を迎へて……五日より
新鮮な 乾物・罐瓶詰・淸涼飮料 菓子・果物・銘茶等々
第五回 アマチュア寫眞展 五日より七日 六階ギャラリー
推奬 水香草紙宣傳賣出し 二階
盛夏用實用呉服特賣場 三階
鮮滿共通 商品券 三圓以上御調進 一階
三越 次の定休日は……八日

コンゴ 誰もが一度は見たい世界の秘境南阿白領コンゴの全貌を描く
世界的探險家デニス夫妻決死撮影 廿世紀フオックス映畫特作日本語版
封切迫る 若草東寶

가려운데제일 히벡고 땀띠·피풍·물옴·왜옴·마른옴·가려운종·모기·빈데물린데·십종·십진 百發百中 下痢特效 ハラノゼ 製造元 靑山製藥社 ◎模似藥注意

ネオアナプカイン 鎭痛 中毒治療劑 日光堂藥品部 京城府南町133

精力强進劑 ニートゲン 特別히初夏에 慈善堂製藥株式會社 木村藥房

朝鮮信託 不動産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本店 京城 支店 群山 釜山 大邱 平壤 成興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夜學 土地를求함 大發明 タイピスト生徒 富圭浣齒科 美容 中古ピアノ 朝報

金村、金郊間水害로 京城以北列車不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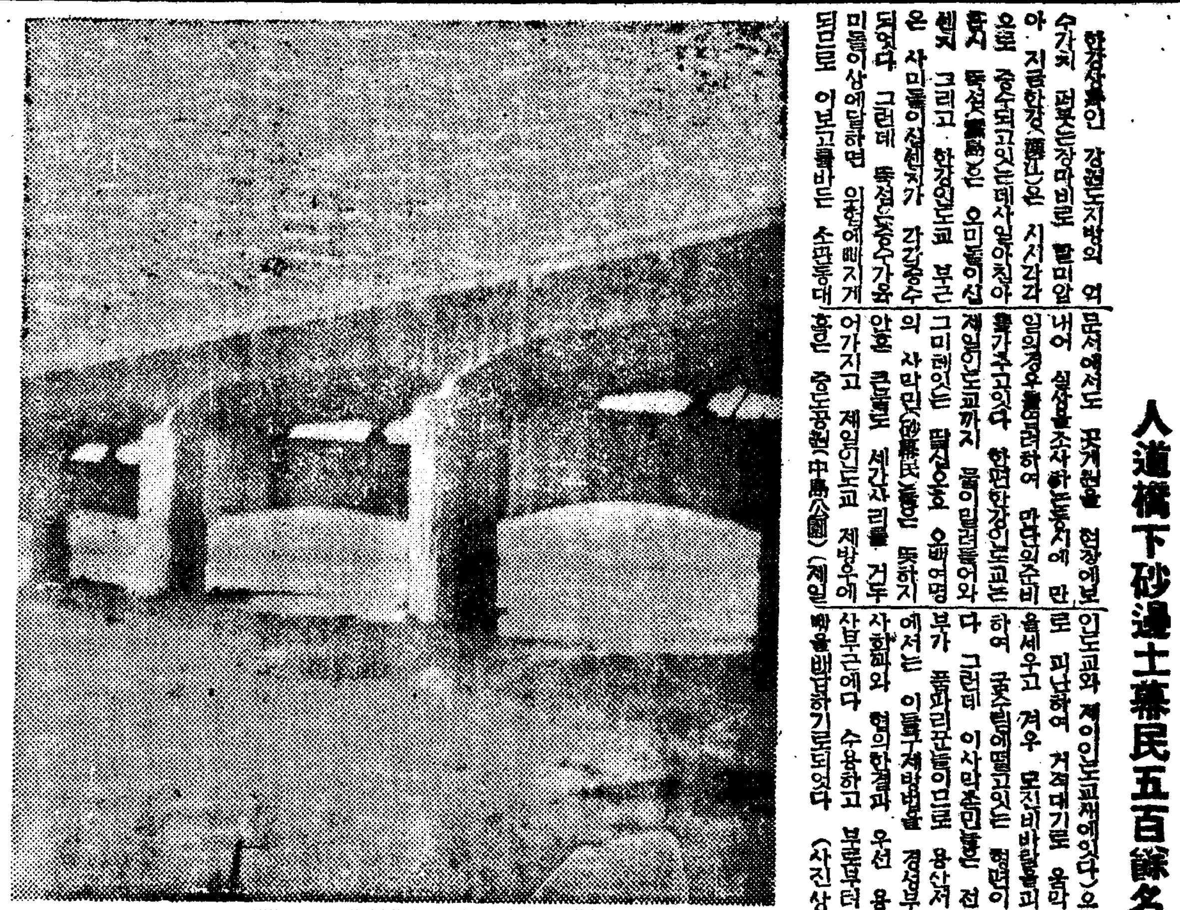
電話線도不通、開城以北狀況不明

개성― 비가작구쏟아지고잇서 [illegible] 경의선선로는 여전히불통상태로 [illegible] 금촌(金村)금교(金郊) 사이에침수 그리나 비가작고쏘다지고 잇기 때문에 일방으로 [illegible] 수해가 나는 [illegible] 분명치안타 [illegible]

漢江刻刻增水中

人道橋下砂邊土幕民五百餘名은卽時避難

한강상류인 강원도지방의 여러날 폭우로 [illegible] 한강인도교와 제이인도교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사막민(沙幕民)들은 [illegible] 중도(中島)공원 [illegible] (사진상 [illegible])



咸南一帶豪雨

【咸興支局電話】함경남도 지방에는 [illegible] 장진(長津), 함주, 신흥(新興) [illegible]

停滯列車에 食事提供

[illegible] 신막(新幕)역에서는 [illegible] 노소미와 대륙으로가는 [illegible] 식사를 제공하 [illegible]

釜山行大陸 京城서特發

[illegible]

中部一帶의豪雨로 漢江淸川江增水

今朝現在各地雨量

【仁川支局電話】總督府氣象觀測表(四日午前十二時現在)=한강(漢江)상류와 청천강(淸川江)유역에 백『미리』이상의 호우가 나려 한강은 지금호우중이다그리고 삼일오전 육시부터사일 오전육시까지의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

▲議政府	九七미리
▲加平	一四三〃
▲長湍	一三九〃
▲漣川	一四〇〃
▲水原	一三一〃
▲南川	三四、三〃
▲金川	五六〃
▲新溪	一三五〃
▲谷山	一二六〃
▲春川	一一九〃
▲原州	一三四〃
▲平昌	四三〃
▲麟蹄	四七、四〃
▲華川	六三〃
▲鐵原	七〇〃
▲金華	七五〃
▲明川	五〇〃
▲德川	八七〃
▲[illegible]	九二
▲寧邊	七七미리
▲安州	八九〃
▲价川	五九〃
▲[illegible]	一二五〃
▲[illegible]	一二八〃
▲新興	六六〃
▲唐津	一二九〃

그리고 황해도、경기도、강원도 연안내륙(內陸)에는 호우중이므로 인천기상대에서는 사일 오전여덟시반에 경보를내엇다

麟蹄邑內浸水警戒

【麟蹄支局電話】[illegible]

鬱島方面材木損失十萬圓!

【鬱島支局電話】[illegible]

道內八割移秧

漢江增水를警戒中

지난삼일밤부터 나리기시작한비로 [illegible]

江原道一圓

各地間에交通杜絶

사일오후두시 강원도 경찰부 [illegible]

京城議政府間 自動車便不通

【楊州】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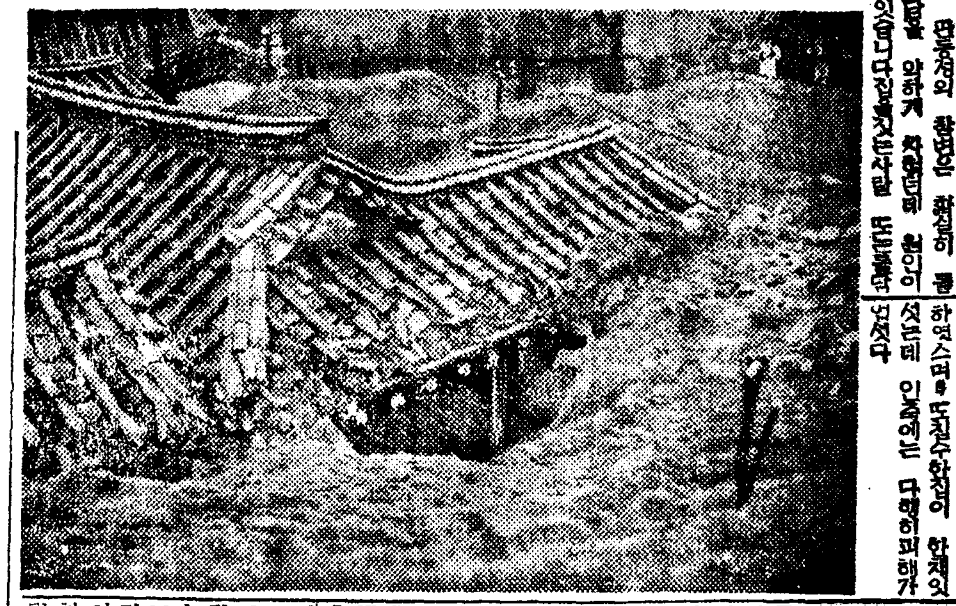
館洞町倒壞慘事는 石築이부실한데原因

請負業者等의不正工事監視가必要!

[illegible]

西署保安係員談

[illegible]



弘濟外里에선 家屋五棟倒壞

[illegible]

敵性國家擊攘大會 雨天不拘明日決行

降雨時엔府民館서屋內大會

지난삼일오후다섯시에 부내남부민관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된 [illegible]

遞信吏員普通科生募集規定

체신국에서는 다음과가틈 [illegible]

▲募集人員 一部 百二十名 二部 二百五十名 ▲願書締切 七月二十五日 ▲試驗科目 國語、作文、算術(高等小學校卒業程度) ▲入所試驗期日 八月三、四日

米領事館에 獨立記念式

부내정동(貞洞) 미국영사관 [illegible]

小中等學校放學 短縮、延長案決定

道當局、管下各學校에通牒

경기도에서는 시국하 [illegible]

▲小學校 夏季休業 自七月二十一日 至八月十五日(改正前八月二十日) 冬季休業 自十二月二十六日 至一月二十五日(改正前一月二十日)

▲中學校 夏季休業 自七月二十一日 至八月十五日(改正前八月二十日) 冬季休業 男(自十二月二十一日 至一月十四日) 女(自十二月二十六日 至一月二十日) ○改正前男女共히(自十二月二十六日 至一月十四日)

斡旋勞働者

移秧後殘部輸送

조선토목건축협회(朝鮮土木建築協會) [illegible]

朝鮮海上防空聯盟 來九日에結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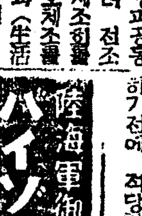
防空施設의統一圖謀

[illegible]

라디오體操會

來廿一日부터全朝鮮一齊實施

여름철에 생활이가장 [illegible]



"決心만은햇것만……"

卅靑春에十八年監獄살고 八犯으로잡힌窃盜

[illegible]

國境地方專賣派出所新築

[illegible]

妓生의飮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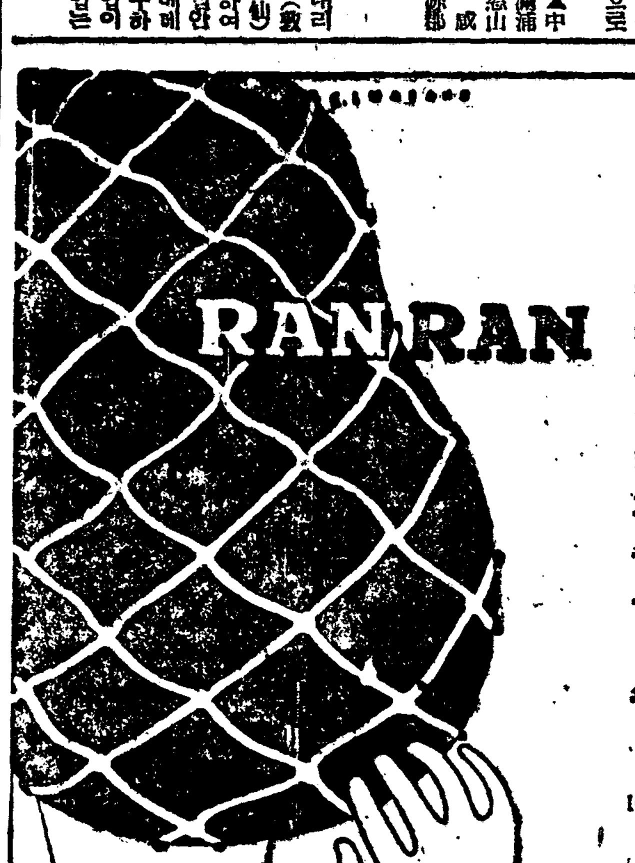
[illegible]

洛血絶命

술먹다싸우고 [illegible]

碧城地方 移秧完了

[illegible]



今日의美學은란란과수누ー스・・・

아이스케ー키機
附屬品一式・エッセンス・バンビ・ンカルシュム
冷凍油
釜山府宝水町一丁目三
興亞冷凍工業所

어린이의善藥
소아간기산
小兒肝氣散
京城府阿峴町七七
製造元 普生藥房本舖

昭和十五年六月 日
株式會社 朝鮮鐵工所 商事部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番地(日本生命ビル)
電話本局② 〇八六三番 七三六六番

拜啓時下盛炎에益々淸祥하시옴을慶賀하나이다
弊社는多年間格別하신愛顧를厚蒙하와業務가日益發展케되옴은오로지各位의絶大한愛護와援助의惠澤으로아옵고感銘不已하나이다
就白今般鮮內의鑿岩機需要者諸位에對하야從來弊社에서取扱하고잇삽든바아무래도直接配給의不圓滑과輸送의遲延으로因하와顧客各位께多少의不便이잇겟사옵기今般株式會社朝鮮鐵工所商事部에朝鮮總代理店販賣權을委任키로되엿사오니弊社나다름업시만흔愛護와鞭撻을주시옵기바라나이다
右는代理店設置에際하여仰願하는바이오며今後도一層愛護하여주시옵기거듭懇願하옵나이다
昭和十五年六月 日 敬具
日本名古屋熱田區新尾頭町一〇〇
合資會社 國盛社
代表電話南⑥六九八八
營業種目 各種鑿岩機 同上部分品 空氣壓縮機 トリルスチール・シャプナー 鑛山用諸機械 製作販賣
第一工場 名古屋市港區築地四三 代表電話築地㉔五三八五番
第二工場 名古屋市南區脇町三ノ一 代表電話端穗㊺〇三〇一番

拜啓時下盛夏之際益々淸穆하신을慶賀하옵니다
弊社는格別하신愛護를蒙하와業務日進月張하옴은오로지各位의深甚하온聲援의惠擇으로아옵고深謝하옵니다
就白弊社가名古屋國盛社製品鑿岩機販賣開始以來아직日淺함에도不拘하고各位의愛用을多蒙케되와感賀不已이오며今般配給의圓滑과迅速을圖謀코저朝鮮總代理店으로서恒常多量의在庫를가지고一層精勵努力하여써顧客各位의期待에相副코저하오니倍前의愛護와鞭撻을주시옵기懇願하옵니다 敬具
昭和十五年六月 日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番地(日本生命ビル)
株式會社 朝鮮鐵工所

漢城銀行

女性 八月號 定價三十錢 十五日發賣

傑作流行歌
해안의 天船
李蘭影
靑春離別 ―朴響林―
新作노들江邊 ―李花子―
꿈꾸는鐘合 ―徐玉子―
비저즌치마자락 ―張世貞―
오케―레코―드

朝鮮音萬國記號表示

朝鮮語學會制案 ❹

狹義的對照表

細則

第一項 長母音은 廣義的 表記法에서는 全長半長을 勿論하고 모두 母音의 오른편에 符號「:」을 더하고, 狹義的 表記法에서는 全長音에는「:」, 半長音에는「ˑ」을 使用한다. 例:

	廣義的	狹義的
全長 감(柿)	ka:m	ka:m
半長 감(材)	ka:m	kaˑm

第二項 두 音節의 連接할 때의 發音은 그 各音節의 原音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連接한 그 경우의 實際發音을 따라 적는다. 例:

	廣義的	狹義的
국물	kuŋmul	kuŋmul
옷안	odan	oɗan
잔네	djonne	ʤonne
앞일	amnji:l	amɲi:l
흘리다	hulljida	huʎʎida
닭님	daljim	taʎim
물결	mulkjəl	mulkjəl
봄비	bombi	pombi
속히	sokhi	sokhi
좋게	djo:ke	ʧo:khe
묻히다	mutʃida	muʧhida
좋다	djo:ta	ʧo:tha
급히	kɯpi	kɯphi
낳추다	natʃuda	naʧhuda
좋지	djo:tʃi	ʧo:ʧhi

第三項 子音 ㅇ은 終聲에만 ŋ으로 적고 初聲에는 表記하지 아니한다. 例: 앙—aŋ

第四項 本表에 規定하지 아니한 古語音에 關한 것은 다음과 같은 記號로써 그 近似音을 表示한다.

母音 ㆍ—ɐ

子音 ㅇ—(默音), ㆁ—ŋ, ㆆ—ʔ, ㅿ—z, ㅥ—ɦ, ㆅ—x, ㅱ—w, ㅸ—β, ㆄ—ɸ

[備考一] 廣義的 表記法의 ɡ(ㄲ), d(ㄸ), b(ㅃ), dʒ(ㅉ)의 發音은 언제든지 無聲音으로 한다.

[備考二] 廣義的 表記法의 ɡ(ㄱ), d(ㄷ), b(ㅂ), dʒ(ㅈ)의 發音은 無聲音으로 하되 有聲子音(ㄴ, ㄹ, ㅁ, ㅇ)이나 母音으로 끝난 音節의 다음에서 連發할 때는 有聲音化한다. 例:

(1) 有聲子音의 다음: 한강 ha:ŋɡaŋ, 만들다 mandɯlda, 담배 da:mbɛ, 창자 tʃaŋdʒa

(2) 母音 音節의 다음: 바가지 baɡadʒi, 개비를 ɡɛbidɯl

[備考三] 廣義的 表記法의 k(ㅋ), t(ㅌ), p(ㅍ), tʃ(ㅊ)의 發音은 强한 有氣音으로 한다.

[備考四] 廣義的 表記法의 모든 子音은 終聲으로 될 때는 閉鎖音으로 發音한다. (끝)

學藝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新雨 押 先韻部 期限 七月十五日 (朝鮮日報社)

문허저가는·낡은 歐羅巴
佛蘭西文學의 苦難 (下)
李源朝

二十世紀

의不安의思想이라 文藝思潮도 생길때의危機이지마는 실상 外國에는 잘알려지지 안흔 佛蘭西文學의 또하나의 危機는 言語問題이었다.

佛語의 特長으로서 世人이 다 推許하는것은 그 正確性, 緻密性, 그리고 明晣性 이러한것들이며 이것은 또한 『롱사ー르』以後數百年의 心血을 다해서 싸아올린 完璧이라는것은 事實이다. 言語에있어서는 그처럼 안이한 革命的이었다 할 『라블레』가 나타나지만은 文章家로 言語의 問題에있어서는 『라브렌』 한사람을 빼노코는 아무도 傳統에 對한 反抗을 한사람이 없었다. 그럼으로 그네들이 古典이라고 하는것 傳統이라고하는것은 事物을 그리는 재주를 말하는 것이니 『지ー드』가 『몬테ー뉴』에서 『바레리ー』가 『데카르트』에서 다 각각 그 文章의 源泉을 바다드린것으로도 알일인데 이러케

言語가 完璧 이되엇다는것, 따라서 어떠케 변동할수 없게 되엿다는것은 決코 그 文學을 發展시키는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文學의 桎梏이 되는수가 잇스니 『플레이야ー드』 一派가 希臘, 羅馬의 文學에 出해서 素朴하고 稚拙하나마 佛蘭西語를 實習하고 擁護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提唱한일을 생각하면 비록 그동안에 四世紀라는 긴세월을 지낫다고하더라도 실로 隔世의 感이 업지안흘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點을 綜合해보라면 오늘날 佛蘭西文學의 世界的地位라는것은 차라리 十九世紀까지 完成된 成果의 遺光과 餘勢이지 그自身이 새로운 歷史的 發足을 하거나 또는새로운 世界文學의 指導者로 압재비 될 能力은 가추지 못한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紅格의 老衰한 佛蘭西文學이 現在의 法國이라면 그러한 革命이나 更新도 되지 못하고 제 內部에서 못한것이 事實이다.

國家的運命 고 外國의손에 依해서 파더부러問題가 되겟다는것은 못는運命인지 모르겟스나 이번 歐洲의 戰亂이 단순히 領土의分割이라든지 이러한것의 賠償의 要求이라든지 이러한것이 아니고 한개의 『이데오로기』와 다른 『이데오로기』의 問題이라면 다시말해서 어떠한 意味에서든지 새로운 體制와 묵은 體制의 抗爭으로 말미암아 그勝敗가 곳 歐羅巴의 새로운 秩序를 形成하는것이라면 佛蘭西文學이 겪거야할苦難은 정말 더 深刻할것이며 따라서 그 相貌도 一變할것이라 할것을 想像할수잇는데 이러케되면 멋 사람의 文士가 實踐에 參加했다거나 또는 戰線에 加擔했다는것은 그다지 重大한 事實이 아니다 가령 처음 宣戰布告를 했을때 『바레리ー』가 『라디오』를 通해서 佛蘭西의 立場을 闡明한것은 世界的 『센세이슌』을 일으킨 모양이나

祖國의 正義 를 擁護하는것은 當然한일이며 그 放送內容中에 狂亂한 國家의 非常에 對해서 理智와 正義를 찾자는말도 頗히 抽象的인 辯護의 文句에 지나지못한것이엿다. 그뒤 事態의 變化는 以外로 急迫하게 進展되엇고 따라서 通信이 끈첫으니 잘은 모르나 二十世紀의 透明人間인 『바레리ー』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役割을하는지 알수업스나 그뒤 『지ー드』의 日記를보니 南方으로 旅行을 떠나면서 그때 (今年一月末이라) 正確한 時日은 이저지마는 佛蘭西에 對해서 다 精神에 對해서 힘이넘쳐흐르는 極히 單純한 한마디의

詠歎的感懷 가 잇슬뿐이다. 何如間 이두사람은 二十世紀佛蘭西文學의 最高峰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國難에 부닥처 무엇을 생각하며 또 한 알몸의 佛蘭西文學의 運命에 對해서 엄마나한 役割을 할것인가 궁금한일이다.

文學은 政治의 禁域?
(로버ー트·린드氏의 近說)

★…政治와 文學의 關係— 이런問題는 우리文壇에는 벌써 卒業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戰亂中의 英國에서 새삼스럽게 이 問題가 되풀이 되어 論議되고잇다고한다.

( )

★…以下는 『로버ー트·린드』氏의 見解가 생각되는 몸이 우리가 觀念的으로만 『文學의 政治性』이니 『文學의 政治의 獨立』이니하고 생각하는것과는 달라서 아주 具體的으로 하는것이 興味잇다.

( )

★…文學과 政治는 여러時代를 두고 서로 『오ー버랩』이 되어왓다 『린드』氏는 그가 論據를 배우자고 論爲의 有名한政治家『씨ー자ー』『데모스테네스』『키케로』『리비』의 著書를 들엇는데 그것은 모두 政治가 뚜렷하게 얼려잇다. 萬若에 藝興文學에서 政治的인것을 빼노흐면 겨우 몃사람의 詩와 戱曲이 남을뿐이다. 氏의 意見으로는 차라리 政治家들이 創作家들보다 훨씬 조흔文學을 남겻다고한다.

( )

★…希臘文學亦是 그속에 政治가 들어오기까닭에 損을보지 안햇다 『헤로도투스』『투키디데스』『플라토ー』『데모스테네스』는 勿論 『유ー리피데스』『아리스토파네스』에도 政治는 만히석겨잇다.

( )

★…英文學에 잇서서도 『밀톤』『스위프트』『죤손』『버ー크』『워ー즈워ー드』『바이론』『쉘리』가 그러타. 『키ー츠』가 그처럼 떠난것도 그의 文學이 政治를 떠난것이 아니고 그가 病弱하엿던 까닭이엿다.

( )

★…英國小說이나 戱曲은 ... 政治의 影響을 받지안헛스나 現代에와서도 『키플링』『웰즈』『쇼ー』『골스워ー디』에 이르른 一聯의 뚜렷한 政治性이 잇다.

( )

★…氏는 이러케 結論한다 『現代作家는 너나할것업시 政治家가 되지안흘수업다. 웨그러냐하면 政治는 現代에와서는 더욱 妙하게 우리들의 立場에 나타나고잇다.』

近著의 『르오ー』

오늘의 『르오ー』는 決코 한때의 그 『알기어려운』 畵家는 아니다. 보는便에서도 놀이갈수록 점점 알게되엇슬지 모르지만 『르오ー』 自身도 變햇다. 말하자면 『에과씨쓰』의 變化다. 그가 속게 宗敎的主題를 가리는데는 變함이업다. 淨化된者, 行者와 商人, 曲馬團, 騎手 — 그의 嗜好도 變함이업다. 그러나 그의 力點은 決코 저 奔放한 印象派的線의 狂暴에 잇지는 안타. 차라리 色彩와 『폼』의 調和에 그의 注意는 集中된듯하다. 그런意味에서 實體的이다. 그속에서 그彼岸가 한 차고 찬란하게 靈魂의 救濟를 調和해가고잇다.

當選漢詩

滄東考選

綠陰 佳作之一 (慶北町二五三) 張永秀

過盡千紅復綠陰 無邊光景滿園林
洞門鎖碧非煙暗 凡閣通涼似水深
蝶覓殘香餘舊習 鶯藏密葉送新音
許同芳草猶佳節 設使詩人好逐尋

一隨筆一 隣近有感 (下)
鄭飛石

晉子의 말슴에 『衣食足而知禮節』이라고잇다 解釋할것도업시 衣食住에 困窮치 안허야 비로소 禮義를 가릴수있다는말인데 그러고보면 우리 先祖傳來의 美風良俗과 禮儀凡節을 擁護하고 維持해야할사람들은 모다 富裕한階級이여야 할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나아가서 優秀한 儒者를 만나 하고 實踐하여 써 一般의 垂範이 되어야할것도 진실로 富裕層이여야 할것이아니가. 하물며 朝鮮사람의 指導的使命을 아니 집어질수업는 人士에 잇서서이랴! 아모리 個人主義世上이요

利己主義時代라해도 人間은 亦是 社會的動物이다. 社會的動物인바에야 社會의 秩序를 維持해나가지 아니치 못할것이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한만해도 『我』를 떠나 『他』라는것도 생각해야 할것이다. 『他』가잇슴으로써 비로소 『我』의 生存意義가 鮮明해진다는것도 眞理는 아닐것이다. 佛蘭西의 『몽테뉴』란 사람은 自己가 財産을 가지고 잇는 것은 기뻐는 그것으로 觀看을 도와줄수잇는 오직 그때문이라고 하엿스나 시방처럼 生存競爭이 極烈한 現實에서 우리는 그러케까지

가혹한 心地는 도저히 바랄수도 업는일이겟지만 그러나 多少의 財産을 지니고 잇슴으로 해서도 리어 隣近을 友誼를 저버리고 隣近을 敵視해야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子孫을 爲하여 美田을 남기 노흔것도 無盡한 祖의 觀念이 아닌가한다. 所有한 財産은 自主의 資格이오 欲求하는 財産은 奴隷의 그것이라고 !!르쏘!!는 말햇다. 여기에 잇서서 自主라함은 決코 孤立을 이름이아니라 社會人으로서의 人格形成의 한 要素란 意味일것이다.

却說 關於이 良邊하여 隣近人士에게는 아닌 목을 리닷 지프다 나는 決코 그러한 非禮를 責하려는것이 아니라 但只 一般論을 몇마디 말해본다 따름이다 그러므로 隣近人士에게 不安의 感을 想起하는이 잇다면 나는일절 關心하는 노릇밧게 업겟다. 그리고 그러한 關心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日後에 隣近人士들과 相從할 機會가 생겨진다면 진실로 望外의 幸이라하겟다.

아직껏 편으로 어찌수업시 맛나게 되는 얼굴들과 서로 外面을 하면서 지내야한다는것은 나에게는 도저히 견되어내지 못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때로 罪惡을 犯行하는 것갓기조차 하니 그만해도 사람이란 人間을 버리고서는 살어갈수업는 아름다운 動物인가 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木을 잘 키워나가야 할것이 아닐까. 그러한 意味에서 兒孩들이 어리고 無邪氣한 天使와 같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隣近의 ... 로 내집에 차저 오는것은 結局의 손님도 다른사람 아닌 여러어린애였고오. 이런 點으로 近隣에서 無心한 뜻에서 나오는 그 孤兒는 卑하지만 우리도 아는 우리의 親舊와 같은 사람이 될수잇는데 그 兒孩들은 그러케 친사리를 하는 것이다. 生에 무엇때문에 까다로운 隔이 생겻슬까. 내가 그러한 問題에 혼자 ...

聖戰美術展覽會

四日부터 總督府美術館에서

陸軍美術協會主催 支那事變 四周年記念 聖戰美術展覽會는 四日부터 十九日까지 總督府美術館에서 열리게되엿다. 出品作品은 七十餘點의 名作을 網羅하는데 모다 聖戰의 자최와 이에 從軍하는 皇軍將兵의 勇姿를 그린것으로 第一部 (油畵) 洋畫六十餘點이 出陳되엿다 (寫眞은 井上畫伯作)

京城 아마추어 第五回 印畫展

京城 『아마추어』 寫眞俱樂部에서는 오는五日六日七日사흘동안 市內三中井 六層 二層 『갸러리』에서 第五回 印畫展覽會를 연다는데 出品作品은 同俱樂部員의 力作百數十點이라한다

兒童藝術의 現狀 ③
楊美林

◇各部門의 現狀◇ —主要한 人物, 作品其他—

兒童藝術의 分類는 사람에따라 그 方法을 달리하나 常識的으로 대개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一、兒童文學 (1、童話 2、小說 3、童詩)

二、兒童劇 (1、兒童劇 2、)

三、兒童音樂 (1、童謠 2、其他)

四、兒童美術 (童畵 其他)

五、兒童舞踊

六、兒童映畵

그사이 의여섯으로 나누어 놋는것이다. 먼저도 말햇거니와 그 어느 部門을 勿論하고 매우 貧弱하며 또 部門을 把握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未知數의 것이 만코 나아가려 하면 偶然의 一時的인 ... 도 아닌가. 그러나 多少 無理가 잇다하드래도 大家의 作品을 골라서 現實에 立脚하여 어떤 程度까지 나의 關聯性을 가지고잇는가도 한번 考察해볼까한다.

兒童文學

1, 童話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도 比較的 順調롭게 發展되어 온것이 우리童話다. 거기에는 勿論 原因이 잇스며 또 一貫한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一言而蔽之하면 兒童文學의 理論의 貧困때문이엇다. 童話라면 아직도 옛날얘기로 아는 사람이 잇스며 그래도 兒童藝術이라는 말을 쓰거나 들은것이 엄마나 된다. 童謠라는 말은 잘 쓰지 마시고 그 모양이다.

勿論 여러가지 原因이 잇겟지만 어떤 兒童藝術이 藝術作品을 얼마나 꾸준히 發表했는지 알수업다. 해마다 各新聞社의 懸賞募集이 잇는 新春文藝의 應募에서 童話를 보면 分明하며 가끔 新聞紙上에서 본 童話가 잇다 하여도 별로 放送童話도 그러하다.

그러나 數年來 一部少數의 優秀한 作家는 우리의 앞날을 기쁘게 해주엇다. 그 第一人者는 玄德氏이며 다음으로 盧良根, 宋昌一等의 諸氏라고 할수잇다.

口碑童話 라든가 民話를 充分히 藝術化하고 創作性을 가하야 다른 兒童文學의 어느 部門보다도 가장 이 方面에 努力한 사람은 金泰午 우리의 童謠와 放送童話 및 兒童劇에서 業績을 남겻다.

그 本質과 任務

童話의 單純性은 그 本質이라 할수잇는 童心과 素朴性이 感激的이며 少年(少女)小說의 複雜(複合)한 性格이 少年의 ... 知性的인것을 ... 指導性으로 그 特徵을 ... 말할수잇다. 作家諸賢의 鬪筆이 ... 할것은 少年(少女)小說이 아직도 적어서 創作은 勿論 翻譯도 늦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2、少年(少女)小說 童話와 少年(少女)小說은 本質上 큰 差異가 잇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混同되는 傾向이 적지안흐며 讀者層에 서도 比較的 無關心한듯하다.

3、童詩(謠) 童謠(謠)에 잇서서는 最近에 두렷이 나타낫다고 볼만한 新人은 업스며 또새롭운 作品이 보이지도 안는다. 尹石重氏等의 重鎭이 如前하며 만한 活動을하나 별로 새로운 作風이 없고 朴泳鍾, 姜小泉氏等의 新作이 近年注意를 끄나 童謠(謠)壇(?)의 傳統의 이무 슨힘가 잇는지 疑問이다. 언제까지든지 愛誦할童詩 와 感鳴할 童謠가 나오기 바란다.

二、兒童演劇

兒童劇과 童話劇은 演出上 큰差異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만히 混同되고잇스며 그 混同은 매우 흥미롭다. 演劇으로서의 童話劇이라면 放送童話이 거의 獨占한 形便이다. 純粹한 兒童劇은 ...

兒童劇의 兒童演劇은 이제부터의 問題이다. 童心 ... 作家가 만흐며 童話劇과 童謠劇의 混同이 ... 것은 演劇的 統合藝術이다. 그러나 綜合藝術인 만큼 더 어려운것이다. 더구나 兒童劇은 協同的 精神이 缺乏한 朝鮮에 從來로 우리의 諸氏의 作風은 매우 獨特한 이 (?)人物이라고 볼만한 兒童劇(童話劇)의 活動을 어보면 洪銀杓(創作, 演出), 朴興珉(創作, 演出), 咸世德(創作), 趙風衍(創作) 들이 諸氏라고나할것이다. 그 창작 童謠는 아직도 앞길이 멀다

協同的 活動을 展開하기 前에는 큰 期待를 갖기 어렵다. 最近의 한가지 記憶되는 것으로는 朴興珉, 鄭泰俊, 金相德등 諸氏의 이方面의 努力을 본것이 잇는데 앞날에 많은 期待를 하며 그리고 『레퍼ー토리』에 잇서서는 勿論 無理한 感이 없지 아니하나 세상에 아무것도 演劇은 이미 내놓은 것이 아니고 朝鮮에서 要求하는 童話劇이 아니다. 그리고 兒童의 生活에 關心이 적다는것을 말하며 또는 期待할만한 의 本質에 잇서서 아니다. 그 本質에 잇서서는 童心이 있서야하며 또 作家諸氏의 技巧에 잇서서도 童心의 純 ...

兒童藝術觀 에잇서서 個性이 잇어서이며 그러나 藝術的 素材의 ... 이 ... 細心한 注意와 努力을 ... 期待한다. 演出에도 藝術的 ... 度를 가지고 童心에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三、兒童音樂 童謠의 作曲은 童謠의 全盛時代와 함께 童謠作曲家도 만히 나왓으며 그 중에서도 鄭淳哲氏 等의 作家들이 잇서서 ... 作曲活動이 잇섯다. 尹克榮, 朴泰俊, 金聖泰, 金大賢, 洪蘭坡, 朴泰鉉 等이 兒童音樂에 功勞한 분들이다.

生活感情 을 十分 表現하는 所謂 『레코ー드』의 童謠가 多少 復興되어 新進作曲家로 金聖道, 尹克榮, 鄭淳哲 等 諸氏를 들 수 잇스며 그러나 近來 朴泰俊, 洪蘭坡 兩氏를 들수잇다.

북·레뷰ー
現代支那의 女流作家
李○夫

現代支那文學全集은 어미 郭沫若의 『創造十年』, 茅盾의 『사랑의 三部曲』, 周作人의 『新文學의 源流』, 巴金의 『家』, 謝冰心의 『蠻』等 一部를 刊行하고 이번에는 『現代支那女流作家集』을 配本하엿다.

女流作家集이라는데에 特別한 興味를 가진것은 아니나 朝鮮의 知識人들이 조금더 現代支那文學에 對하여 關心을 가저도 조흘것이라 생각함으로 『現代支那女流作家集』을 읽은것을 機會로 이에 對한 一三의 所感을 적어보고저 합니다.

먼저 이책의 目次를 보자.

一 最初의 晚餐會 (冰心)
二 (舊時의記錄)
三 (松子)
四 千代子 (凌叔華)
五 가버린뒤 (丁玲)
六 家族以外의사람 (廬隱)
七 旅行 (馮沅君)
八 蒸母 (馮沅君)
九 山中雜記 (冰心)
十 두家庭 (冰心)

이중에서 丁玲과 冰心은 가장 有名하고 또가장 注目할 作家다. 그리고 同時에 이 두 作家에서 支那新女性의 典型的인 두 『타입』을 發見할수도잇는것이다.

丁玲은 그 熱情的인 點에서 그리고 그 悄然한 點에서 더욱 有名하다. 그러나 이 新女性이 어떤 類型의 사람인지 있어서 支那新女性이 到達할수 잇는 한개의 地點에 到達하여 있는지도 모른다. 胡也頻과 의 戀愛 그리고 結婚 — 胡也頻의 被殺 — 丁玲自身의 投獄 (外部에서는 被殺의 誤傳이 잇섯다) 等等 이것이 今年 三十二歲된 丁玲의 半生이다.

이러한속에서 丁玲은 『自殺日記』 『一個女性』 『母親』 『水』 『在黑暗中』 등을 썻다 이중에서 『母親』 은 丁玲의 代表作이라고 할수잇거니와 現代支那文壇의 一大收穫이라 할만한것이다. 『現代支那女流作家集』에 들어있는 『松子』 『가버린뒤』 도두篇 다 熱情家丁玲의 面目을

充分히 發揮하고잇다. 더구나 『가버린뒤』 (原名은 『他走後』)는 胡也頻과의 戀愛에 熱烈한 戀愛의 一斷面을 보여주는 作品으로 胡也頻의 『一個戀愛故事』과 아울러 읽을때 興味津津한것이잇다. 이와같이 熱烈한 戀愛와 가치 그의 思想도 그는 變하엿서도 다시 한발을 아프로 내드되는 實踐力을 그러것이 丁玲의 特色이잇다.

丁玲과 正反對의 地點에서 잇는것은 女流作家 冰心이다. 冰心은 五四時代新文學運動의 一大團體의 하나이잇던 文學研究會의 重要한 作家엿다. 더구나 『超人』은 一世를 風靡한 傑作이엇섯다. 그러나 冰心은 그의 作品이 아모리 社會의 問題를 닷더도 社會의 潮流에 휩쓸리지는 안코 突進하는 女性은 아니다. 聰明하엿고 또 飲食도 하엿다. 燕京大學卒業—米國留學—燕京大學敎授—吳文藻와의 結婚—和平一路의 冰心의 半生을 보라. 吳文藻는 社會學研究家나 敎授이다. 冰心은 社會學에는 大學에서 專攻하여 그 周圍는 그러나 社會의 ... 도 大學生活을 무난하게 지냇고 그뒤로 그의 作品에도 그다지 變化는 업섯다.

『最初의 晚餐會』 속에서 오는 것이 그 冰心의 一面을 보여주는 조흔作品이다.

『寄小讀者』는 冰心의 가장 有名한 作品이다. 『山中雜記』는 米國留學中에 쓴 사람의 作品이다. 冰心을 어린이에게보낸 通信의 한 形式으로 된것으로 『閑話』를 즐기는 으로의 批評家가 冰心의 作品에는 『優美한 散文詩』가 있으며 『兒童文學』 으로서의 作品

이 小說 『千代子』의 作者 凌叔華는 『千代子』 를 잡기 始作한지 벌써 十五六年前에 어느때 도어서 『花之寺』 『女人』 『小哥兒倆』 等의 小說이 잇다. 그러나 이때 까지 아직 冰心의 『超人』과 겨룰만한 作品은 쓰지 못한듯하다. 일찌기 魯迅은 『新月』 派의 女流作家요 『閒話』 로 有名한 陳西瀅과 論爭하였을때 陳西瀅과 문文學的才能은 不足한 學者이 엿 다. 文學的才能이 不足한 學者의 夫人은 凌叔華다 ...

이외에 廬隱, 馮沅君, 蘇梅 等의 作品이 잇스나 이외에 對하야는 그들의 作品을 아직 별로 읽어보지 안엇슴으로 아무 所感도 말할 수 업다.

끝으로 支那女流作家로는 이외에도 陳衡哲, 白薇, 謝冰瑩 等의 作家가 잇스나 무슨 理由로서인지 『現代支那女流作家集』에는 紹介되지 안엇슴을 附記하여둔다 (現代支那女流作家集) 定價一圓五十錢 東京 改造社刊)

修養 合理的心身鍛鍊法 (十五)
陸軍中將 秦眞次

3, 斥候相互協同의一例

A斥候가 前進中 가까이 友軍의 B斥候가 敵으로부터 特히 攻擊되는것을보고 이에協力하는 情況아래 說明한다

4, 步哨와斥候의協同

가, 斥候가 步哨線을 通過하여 敵方으로 나갈때와 敵方으로부터 도라와서 步哨線을 通過할때 步哨와斥候와의 協同動作을 說明함

나, 斥候의 步哨線通過時에 敵兵을 나오게하여 協同하여야 할 事情이 잇다.

다, 友軍斥候가 敵에게 쫓기면서 步哨線에 왓을때 步哨가 協力하여 ...

四, 斷乎不屈 (不撓不屈)

五, 其他手段의 動作을 하는者 그 結果를 體得하는者의 協同動作이 어떠케 全體의 結果에 影響하는가를 事實과 時間을 計算하여 이를 比較하여 協同의 必要를 感得케함

9 責任觀念의 訓練

責任觀念은 共存共榮의 社會에 生存한 限 絕對로 必要한 것이다. 成功者가 되는냐 안되는냐는 이 觀念의 有無에 依하여 決定된다고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래서 責任觀念이란 自己에 게 任務, 自己가 行動하려 할 일이 잇서서 이를 完全하게 實行하려는 것으로 이것도 心身 一致가 아니면 안된다. 이 問題를 硏究하여 各方面에서 훈련하여야한다. 그중에서 四番가 되지 안코 全體가 協同하여 責任을 지게 하여야 한다.

目的으로 指揮官自身이 이를 고치도록 해야 한다. 嚮導할때에 비로소 敎育의 目的을 達할수잇다.

一, 部隊行進

部隊가 行進할때 四番은 前番에게 調整하여 行進하여야 한다. 三番은 四番에 準하고 二番은 三番에 準하여 目的한 方向으로 行進한다. 그런데 從來의 敎育은 이것이 不完全하여 四番의 背後에 서서 ... 調整하게 되는 例가 잇다.

다 이것은 正面訓練이 안된 까닭이다 指揮官이 ... 各番을 ... 正面으로 하는 訓練을 ...

二、側面行進

四列側面行進中 그대로 停止시키고 다음 諸注意를 指示하는데 有效하다. 各番의 所在를 明確히 하여야 하고 또 停止 할때에는 右에 向하여 ... 行進으로 ... 止한때에도 同樣이다. 行進間 停止後의 整頓을 任意로 하여야 한다

三、開閉訓練

整頓을 하고 任務를 주어 그 任務의 實行이 全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理解시킴. 各各 責任을 바루 行하여 各人은 協同一致를 하여야한다. 各各 ... 責任을 바루 行할때 ...

四、步哨의 責任의一例

(가) 步哨를 세우고 그一人을 陣地前面에 내보내서 射擊시키고 右手로 銃을 ... 左手에 잡고 어찌되든지 指揮官이 命令하여 ...

雜誌紹介

▲朝光 七月號 發行所京城府 (朝鮮日報社出版部) 定價五十錢
▲文章 七月號 發行所 京城 (文章社) 定價四十錢
▲新世紀 七月號 定價二十錢
▲文化朝鮮 六月號
▲人文評論 七月號 發行所京城 人文社 定價五十錢
▲女性 七月號 發行所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米人口一億三千萬

【紐育發同盟】米國政府統計局最近의 調査에 依하면 米國總人口는 이미 一億三千百萬人을 突破한것이 判明되엇다 한다

第五回 音樂콩쿨

今秋開催 詳細追後發表

指定曲目 審査委員會決定發表

聲樂部
一、나의女王 ……… 브람스 (Wie bist du Meine Königin)
二、사랑의노래 ……… 브람스 (Minnelied)
三、小夜曲 ……… 미카르트 스트라우쓰
四、두명의擲兵 ……… 슈ー만 (Die Beide Grenadiere)

提琴部
콘첼트 (D短調) 十九番 ……… 크로이처

첼로部
콘첼토四番 G長調 ……… 플러만 (Konzert No. 4 G Dur. Op65)

洋琴部
奏鳴曲 (A長調) ……… 모차르트
全樂章 (反復不要) (Sonate No.14) (Variation) A Dur
第一樂章 (Konzert dmoll No.19)

主催 朝鮮日報社

運合成立의內容 業界改善은成就햇나

③……金重圭

마침내 運送合同은 資本金 [illegible] 萬圓의 全額拂込의 發起設立으로 하고 五月 二十八日 七十五名의 發起人이 集合하여 法的手續을 完了하여 五年間의 [illegible] 合成社는 [illegible]

運合前 [illegible]

[illegible]

千歲白 [illegible]

小運送業統制問題經緯

朝鮮運輸同盟會立場에서檢討

代行所 [illegible]

數年間 [illegible]

現重役 [illegible]

會社의 [illegible]

營業所 [illegible]

鐵道局 [illegible]

預金利下의反響

移動, 逃避는念慮업다

郵貯와의摩擦도回避

朝鮮內에잇서서의 預金利下는 七月一日부터 實施되엇는데 利下에依한 預金의 消長에對하여는 아직實施初期이므로 그反響이나타나지아니 [illegible]

[illegible]

公定價勵行監視

京城經濟統制協力會

調査員五百名을配置

京城經濟統制協力會에서도 그 [illegible] 第一着手로써 各商店으로하여금 公定價格을勵行케하도록하고 前月下旬에 第一回役員會를 開催 [illegible]

[illegible]

日銀, 鮮銀劵

繼續收縮

[illegible]

專賣局國境派出所

廳舍新築計畫

[illegible]

專賣事業의方向 (下)

松澤專賣局長講示

煙草製造 [illegible]

事變以來 [illegible]

專賣取締 [illegible]

事變以來 [illegible]

食料鹽에 [illegible]

國民精神 [illegible]

廢品統制會社

創立發起人會

[illegible]

小麥取引單位

百斤建要望

[illegible]

棉花共販價格

採算的價値를要望

今年의 棉花共販價格은 [illegible]

飼養管理所를

朝畜서買收

[illegible]

金融組合預金

三億一千萬圓

前年純增八千萬圓

五月末現在에 잇서서의 金融組合預金 [illegible]

朝鮮牛移出

一萬頭目標

[illegible]

砂糖配給機構

小賣商을指定

新規菓子商不許可

[illegible]

鯖粕販賣高

[illegible]

메리야스子供服等

公定價格決定

[illegible]

京城物價 四日

[illegible]

今日現株氣配 (正午調)

[illegible]

株式 强調

押目買도

中間戾程度?

後場保合

現物反戾

煙草鐵鋼株上昇

實物賣買市勢

東京國債

海外經濟 三日

銀行劵 三日

金利手形交換

對外爲替

[illegible]

生糸 / 綿布 / 棉花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株式 賣買 東 東亞證券

三國志 【245】

韓龍雲 譯 / 熊超 畵

孔明의遊說江東 (七)

꼿명이 얼골을 우럴러 우스며 말하되

「어찌 그가치 사람을 용납지 못하너뇨 내가스스로 조조를 파할 계교가 잇스되 [illegible]

[illegible]

「선생의말은 나의 막힌가슴을 여러주는도다 [illegible]

[illegible]